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

추 태 귀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Multiple Body-Image and Clothing-Benefit Sought according to Body-Cathexis

Tae-Gue Choo

Dept. of Clothing & Textile Design, Sangju National University, Sangju,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ultiple body-image and clothing-benefit sought according to body-cathexis.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58 female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pook.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Most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especially with lower parts and weight. Among three factors of multiple body-image, degree of appearance-conscious was high, but degree of weight control and physical attractiveness were evaluated low. According to body-cathexis, differences were found in degree of weight control and physical attractiveness between groups. Respondents sought practical use of one's clothing most and comfort, figure flaws compensation, in turn. According to body-cathexis, differences were found in 4 factors of clothing-benefit sought, those were figure flaws compensation, sex appeal, individuality, practical use between groups. Between the factors of multiple body-image and the factors of clothing-benefit sought,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so it indicated that one's body-image was effected on clothing-benefit sought.

Key words : body-cathexis, multiple body-image, clothing-benefit sought

1. 서 론

오늘날 젊고 날씬한 신체의 추구 등 외모의 아름다움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인생의 추구 목표가 되기도 한다(Paoletti & Kregloh, 1989). 신체적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미적 기준은 대중매체 등 정보 전달 수단의 발달로 개인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체만족도는 객관적인 신체 치수 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바람직한 신체형태는 문화적인 기준과 고정관념에 근거하며,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느끼는 방식은 문화적인 이상, 사회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말하며, 신체크기, 체중, 그리고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들의 생김새 및 의복과 화장 같은 신체적 외모를 결정하는 신체의 다른

면들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의복흥미, 유행의사선도력, 유행혁신성 등 의복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들처럼 신체이미지도 개인의 의복에 대한 상호작용 및 타인 앞에서 의복 차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다(Rudd & Lennon, 2001).

Rudd & Lennon(1994)은 미적 이상형에 대한 개인의 반응 모델에서 미적 이상형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의 외모관리 행동은 자존심에 의해서 동기화되며, 특정 문화권의 미적 이상형은 그 문화권의 개인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나가는데 사용하는 미적 기준으로 내면화되고, 그런 다음 개인은 자신의 외모를 이 이상형과 비교한다고 하였다.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인 신체상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자아 혹은 신체 일부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이상형에 근접하려는 외모관리의 전형적인 형태로 체중관리, 메이크업, 의복 등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이상형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 뿐 아니라 식사조절, 운동, 화장품 사용, 성형수술, 의복 선택 등의 외모관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신체만족도의 정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 및 태도 즉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의복을 사용하여 외모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의 정도를 알아보고, 신체만족도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의복추구효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의 상관관계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만족도

개인이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 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만족도(Labat & Delong, 1990)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만족도는 신체 치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이상형에 대한 기준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신체비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대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신체만족도는 개인의 신체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만족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 체중조절 등의 몸매관리행동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외모관리의 한 수단이 되는 의복에서 추구하는 효용도 달라질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 경우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의복에서도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형을 선호할 것이며,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 경우, 여러 가지 외모관리 행동을 통하여 이상형에 근접하려고 하고, 의복을 통하여 체형을 가리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Kwon & Parham(1994)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의복 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즉,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한 여성 피험자는 자신이 날씬하다고 인식한 피험자들보다 자신의 신체형을 보완하고 편안하고 개성을 추구하는데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황진숙(1998_b)은 응답자가 체중부위에 만족하면 할수록 몸에 타이트하게 끼는 의복과 밝은 색상의 의복, 허리와 힙을 강조하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 등 특정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는 그 부위에 관련된 의복스타일 선호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수지와 이인자(1996)는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다고 하였다.

2.2.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 이미지로서,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 인식적인 요소로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치수, 형태, 체중, 특징, 운동, 기능 등을 보는 방식을 말하며, 태도적인 요소는 개인이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한다(Rudd & Lennon, 2001).

Cash(1990)는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다차원적이며,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의복, 화장,

악세사리 등에 의한 외모관리에 따라 개인의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신체이미지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시킨다고 하였다.

김광경 등(200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이미지의 하위차원을 외모관심, 신체매력, 몸매관리, 운동능력의 4개 요인으로 밝혔으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하위차원 중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성적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신체가 매력적이고 운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몸매를 강조하는 의복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박선영(1998)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인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타이트한 의복을 착용하였고, 신체이미지가 비만군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여유있게 몸에 맞는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신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 바람직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려 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2.3. 의복추구혜택

추구혜택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혜택을 말하며, 마케터들이 시장세분화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이다. 마케터들은 추구혜택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미충족된 소비자의 요구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Engel et al., 1990).

의복추구혜택은 의복의 선택 및 사용에서 얻고자 하는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복의 도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의복추구효용은 크게 실용성과 미의 추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에 따라 의복추구효용도 달라질 것이다. 의복선택기준에 따라 응답자들을 분류한 Jenkins & Dickey(1976)의 연구에서는 외모와 실용성이라는 2가지 차원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를 패션주창집단(fashion advocates), 품질추구집단, 심미-절약 추구집단 및 실용성 추구집단 등 4개의 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Cassill & Drake(1987)는 여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복에 대한 3가지 평가기준-적합성, 경제성, 타인지향성-을 밝혔으며, Shim & Bickle(1994)는 여성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의복혜택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징적/도구적 의복 사용자, 실용적/보수적 의복 사용자 및 무관심한 의복 사용자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의 특성을 밝혔다. 의복추구혜택은 이와 같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가 다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복은 인간의 신체와 가장 밀접한 환경을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신체라 했을 때 옷을 입은 신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상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자신의 신체를 이상형과 비교하

여 불만족할 때 개인은 이상형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외모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강조하거나 결점을 보완하는 등 의복에서 얻고자 하는 추구효용도 달라질 것이다. 황진숙(1998a)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며, 또한 특정 부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추구혜택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광경 등(2001)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에 따라 의복추구혜택에서 차이를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개인의 신체만족도에 따라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각 집단 간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및 의복추구혜택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체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집단을 분류한다.
- 둘째, 신체만족도 집단 간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 한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95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45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측정도구는 신체만족도에 관한 15문항,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에 관한 14문항, 의복추구효용에 관한 18문항 등 총 4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신체만족도는 15개 신체 부위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한 후 '매우 만족한다'의 5점, '매우 불만족한다'의 1점으로 나타난 5점 리커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포함된 15개 신체 부위는 체중, 신장,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다리모양, 허벅지, 종아리, 눈, 코, 얼굴색, 얼굴형태, 다리길이 및 몸매로, 이 신체만족도 측정 문항은 구양숙과 추태귀(1996)가 Mahoney & Finch(1976)의 문항에서 수정 발췌하여 사용한 17개 문항을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김광경 등(2001)이 사용한 문항 중에서 발췌한 후 예비조사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3개 요인(외모에 대한 관심, 체중관리 및 신체적 매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Cronbach α 값은 0.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은 총 18문항으로 유행성, 결점보완, 성적 매력, 개성, 실용성 및 안락감 추구에 관하여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황진숙(1998a), 류은정과 임숙자(1998), Kwon & Paham(1994)에서 발췌, 수정하였으며, 각각의 의복추구혜택 문항들의 Cronbach α 치는 0.60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값을 나타내었다(Table 2).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s 적률상관계수 등의 분석을 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of body image

Factors/Statement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Cum. Pct. of variables	Cronbach α
Factor 1: Appearance consciousness		2.948	21.056	.5410
I always make sure of my appearance before I present myself in public.	.712			
I feel uncomfortable when my attire is not suitable.	.703			
It is important for me to be seen smart appearance.	.688			
I make an effort to make my appearance better.	.684			
I don't care how others think about my appearance(R).	.651			
I look myself in the mirror frequently.	.634			
Factor 2: Weight control		2.700	40.345	.8198
I am on a diet to reduce my weight.	.831			
I am always anxious that I am fat or gain my weight.	.805			
I am worry about change of my weight.	.769			
I have an experience of having very restricted meals to reduce my weight in a short period.	.739			
Factor 3: Physical attractiveness		1.999	54.623	.6094
I am sexually attractive.	.713			
Most people regard me smart.	.697			
I am satisfied with my naked body.	.679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577			

Table 2. The clothing benefit variables

Fashion image (Cronbach α : .6939)	
I try to select updated fashions and accessories.	
I Wearing the latest styles is important to me in order to maintain a fashionable image.	
I try to select clothes that portray a fashionable image.	
Figure flaws compensation (Cronbach α : .6447)	
I try to cover my figure flaws with clothing.	
I select clothing that will camouflage my figure problems.	
I use clothing as a tool to make my figure look like the ideal.	
Sex appeal (Cronbach α : .6585)	
Dressing to appeal the opposite sex is important to me.	
I dress to impress the opposite sex.	
I buy clothes which will emphasize my femininity.	
Individuality (Cronbach α : .7279)	
I try to choose clothes that make me look distinctive.	
It is important for me to wear clothes in my own way.	
I tend to select clothes that are unusual.	
Practical use (Cronbach α : .6081)	
I buy clothes that can be worn frequently in normal times.	
Before I buy clothes I consider whether the clothes can be worn frequently.	
I buy clothes that will be match well with my own clothes.	
Comfort (Cronbach α : .7058)	
I select clothes that are comfortable.	
I select loosely fitting clothes.	
I select clothes that are comfortable for me to move.	

Table 3. Body-cathexis means

Body parts	Mean	Standard deviation
Weight	2.33	1.049
Neck girth	3.08	.971
Waist girth	2.50	1.079
Hip girth	2.29	.967
Body build	2.53	1.383
Shape of legs	2.53	1.016
Thigh	2.21	1.026
Calf	2.51	1.010
Eyes	3.17	1.097
Facial complexion	2.81	.968
Nose	2.93	1.019
Face color	2.82	1.027
Height	2.65	1.117
Length of legs	2.56	1.053
Bust girth	2.60	1.350
Total body cathexis	2.63	.599

Table 4. Groups according to the mean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groups	Mean of body cathexis	Frequency (Percentage)
Lower group	$M \leq 2.33$	152 (33.2)
Middle group	$2.33 < M \leq 2.87$	170 (37.1)
Higher group	$2.87 < M$	136 (29.7)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신체만족도

응답자들의 신체만족도 평균점수는 2.68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각 부위별 신체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눈, 목둘레, 코, 얼굴색 및 얼굴모양 등 얼굴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벅지, 엉덩이 둘레 및 체중 등 하체와 체중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결과는 최근의 날씬한 몸매 추구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얼굴/상체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체중, 허리둘레, 힙둘레 및 허벅지를 포함한 체중 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한 Hwang(2000)의 결과와 일치하며, 송정아(2000), 정재은과 남윤자(1999) 및 구양숙과 추태귀(1996) 등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Labat & Delong (1990)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의류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치수체계가 상체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날씬한 엉덩이에 의거한 치수에 실제치수를 맞추려고 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하였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의복추구효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152명, 33.2%), 신체만족도 중간 집단(170명, 37.1%),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136명, 29.7%) 등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 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중간 점수를 가지는 많은 응답자들이 상, 하 집

단에 나누어 분포될 수 있고, 따라서 집단의 특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Table 4).

4.2.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 :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모 의식, 체중조절, 신체적 매력 등 3개 차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전체적인 평균을 살펴보면 Table 5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들은 외모 의식 정도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옷차림을 확인하고, 차림새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걱정하며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나 체중증가에 대한 걱정 등 체중조절에 관해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하여 매력적이지 못하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움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 간의 신체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체중조절 및 신체적 매력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들은 신체만족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의 집단에 비하여 체중조절 및 체중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 하는 편이며,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의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체중 및 둘레항목 특히 허벅지 등

Table 5. Multiple body images and clothing benefit sought of body cathexis groups

Multiple body images & clothing benefits sought	Lower group (152)	Middle group (170)	Higher group (136)	Total mean	F value
Appearance consciousness	3.5811	3.6833	3.5343	3.6052	2.544
Weight control	3.0822 (a) ¹	2.9735 (a)	2.3254 (b)	2.8171	29.556***
Physical attractiveness	2.2944 (c)	2.6779 (b)	3.1121 (a)	2.6796	92.894***
Fashion image	2.6798	2.8571	2.7108	2.7544	2.814
Figure flaws compensation	3.4276 (a)	3.4122 (a)	3.1103 (b)	3.3275	10.439***
Sex appeal	2.8246 (b)	3.0471 (a)	3.0858 (a)	2.9847	6.484**
Individuality	2.6820 (b)	2.8619 (a/b)	2.9461 (a)	2.8271	4.586*
Practical use	3.6250 (b)	3.7784 (a/b)	3.9265 (a)	3.7715	9.915***
Comfort	3.5088	3.4477	3.5711	3.5047	1.306

(a)¹. the result of Scheffé test

* : p<.05, ** : p<.01, *** : p<.001

의 들레항목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신체만족도가 낮은 경우 체중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며 체중조절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실제로 다이어트 조절 등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만족도에 관계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자주 확인하고 의복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걱정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신체만족도와 의복 흥미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Damhorst & Littrell (1984)의 보고와 의복 및 유행에 관한 흥미는 신체치수와의 관계가 없다는 Davis(198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체만족도는 상관없이 의복 및 유행에 관한 흥미나 자신의 외모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되며,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의복추구혜택 :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의복에서 실용성을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편안함, 신체적 결점의 보완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매력 및 개성은 그저 그런 정도로 추구하고 유행성을 가장 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행에 민감할 것으로 생각되는 여대생이 대상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은 유행성 및 편안함 추구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집단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의복을 이용해 신체 결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편이다. 이런 결과는 황진숙(1998)의 연구에서 머리/상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결점보완 추구 경향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같은 경향이다.

그러나,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적매력, 개성 및 실용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 사용

에도 더욱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4.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상관관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차원간의 상관관계 : 외모 의식정도는 체중조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체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자신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는 무관하게 외모를 의식하며, 외모를 의식하기 때문에 체중을 의식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 정도와 체중조절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체중조절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체중증가에 덜 예민하다고 할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 차원간의 상관관계 : 유행성 추구 성향은 성적 매력 및 개성 추구 성향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점 보완 추구 성향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점 보완 추구하고 성적 매력 추구 성향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점보완과 개성 추구 성향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적 매력과 개성 추구 성향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행성, 결점보완, 성적 매력 및 개성 추구성향간에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유행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클수록 결점 보완, 성적 매력 및 개성 추구 성향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성적 매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클수록 개성추구 성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함과 실용성 추구 성향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편안함 추구 성향은 유행성 및 성적 매력 추구 성향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의복 유형이 인체에 밀착되고 여분이 적은 경향이 있어 편안하고 활동적인 의복은 유행성에서 다소 떨어지고 성적 매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편안함 추구성향이 유행성 및 성적 매력 추구 성향과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의복의 활용가능성 등을 말하는 실용성은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ultiple body image and clothing benefit sought

	Appearance consciousness	Weight control	Physical attractiveness	Fashion image	Figure flaws compensation	Sex appeal	Individuality	Practical use
Appearance consciousness	1.000							
Weight control	.317***	1.000						
Physical attractiveness	.043***	-.215***	1.000					
Fashion image	.452***	.226***	.175	1.000				
Figure flaws compensation	.438***	.406***	-.102***	.410***	1.000			
Sex appeal	.493***	.225***	.216***	.530***	.464***	1.000		
Individuality	.326***	.084	.277***	.541***	.288***	.446***	1.000	
Practical use	.123***	-.047	.235***	-.014	.105*	.102*	-.006	1.000
Comfort	-.177***	-.099*	-.017	-.233***	-.013	-.214***	-.173***	.475***

* : p<.05, *** : p<.001

편안함을 제외한 다른 의복 추구성향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 추구혜택간의 상관관계 : 외모의식 정도는 유행성, 결점 보완, 성적 매력 및 개성 추구 성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체중조절 정도는 유행성과 성적 매력 추구 성향과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결점 보완추구 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체중 조절에 더 관심이 높고 따라서 신체 결점 보완을 위하여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는 성적 매력, 개성, 실용성 추구 성향과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결점 보완 추구 성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신체만족도가 낮 으면서 외모를 의식할수록 체중조절에 관심이 높으며, 따라서 결점 보완을 위하여 의복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신체만족도는 다소 낮아 불만족한 편이며, 특히 하체와 체중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하였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만족도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외모의식, 체중조절, 신체적 매력 등 세 개 차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 외모를 많이 의식하고 자신의 차림새를 살펴보거나 적절한가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에 대한 우려나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신의 신체적 매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체중조절 및 신체적 매력에서만 나타났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등은 덜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외모의식 정도는 신체만족도와는 관계없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에서는 실용성을 가장 많이 추구하며, 그 다음으로 편안함, 신체적 결점보완 순으로 나타났다. 유행성 추구는 다른 혜택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은 유행성 및 편안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혜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적매력, 개성, 실용성을 더 추구하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의복을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의복이미지 차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모의식정도와 체중조절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또한 체중조절과 신체적 매력 사이에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 차원 중, 유행성, 신체적 결점보완, 성적 매력, 개성 추구 등 4개 추구혜택들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편안함 추구 성향은 실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행성 및 성적 매력 추구성향과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차원적 의복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외모의식 정도와 유행성, 신체적 결점보완, 성적 매력, 개성 추구 성향 간, 체중 조절 정도와 신체적 결점 보완, 성적 매력 추구 성향 간, 신체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와 성적 매력, 개성, 실용성 추구 성향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신체적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매우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옷차림과 외모를 유지하고자 하며, 의복을 사용하여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도가 낮고, 자신의 신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신체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도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좀 더 바람직한 외모 관리의 방법으로 의복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체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유행하는 의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유행성을 가지면서도 자신에게 적절한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외모 및 의복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지도록 의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성을 가장 많이 추구하고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싶어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복추구성향을 볼 때, 의류산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실제치수와 이상 체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복추구성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양숙·추태귀 (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 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김광경·이금실·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류은정·임숙자 (1998) 소비자 가치체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749-759.
- 박선영 (1998) 성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의복착용스타일.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2000) 패션모델과 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0), 325-330.
- 이수지·이인자 (1996) 성인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 30, 59-68.
- 정재은·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 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황진숙 (1998a)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황진숙 (1998b) 신체만족도가 의복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 41, 107-115.
- Cash T.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Thomson, J.K. (Eds).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New York.
- Cassill N.L. and Drake M.F. (1987) Apparel selection criteria related to femal consumer's lifestyle. *C.T.R.J.*, 6(1), 20-28.
- Damhorst M.L. and Littrel M.A. (1984) Clothing interests and body-cathexis of high school cheerleaders. *ACPTC proceedings: Combined Central, Eastern and Western Regional Meetings*, 38-39.
- Davis L.L. (1985) Self-perceived soma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ACPTC proceedings: Combined Central, Eastern and Western Regional Meetings*, 250.
- Engel J.F., Blackwell R.D. and Miniard, P.W. (1990) "Consumer behavior." The Dryden Press, Chicago.
- Hwang J.S. (2000) Effects of body-cathexis and importance of ideal body image on satisfaction with ready-to-wear. *J. Kor. Soc. Cloth. Ind.*, 2(5), 391-397.
- Jenkins M.C. and Dickey L.F. (1976)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150-162.
- Kwon Y.H. and Parham E.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T.R.J.*, 12(4), 16-21.
- Labat K.L. and DeLong M.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T.R.J.*, 8(2), 43-48.
- Mahoney E.R. and Finch M.D. (1976) The demensionality of body-cathexis. *Journal of Psychology*, 92(2), 277-279.
- Paoletti J.B. and Kregloh C.L. (1989) The children's department. In C. B. Kidwell & V. Steele (Eds.),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Smithsonia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 C., pp.22-41.
- Rudd N.A. and Lennon S.J. (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T.R.J.*, 19(3), 120-133.
- Rudd N.A. and Lennon S.J. (1994)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theory. In M. Delong & A.M. Fiore(Eds.), *Aesthetics of textiles and clothing: Advancing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Monument, CO: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163-175.
- Shim S. and Bickle M.C. (1994) Benefit segments of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ping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C.T.R.J.*, 12(2), 1-8.

(2002년 7월 30일 접수)